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551>

JCCT 2023-11-65

존 버닝햄 그림책 『셜리야, 물가에 가지 마!』, 『셜리야, 목욕은 이제 그만!』의 상상적 함의: Bakhtin의 카니발 개념을 이용한 해석

Imaginative Implication of John Burningham Picturebooks 『Come Away from The Water, Shirley』 and 『Time to Get Out of The Bath, Shirley』 : An Interpretation using Bakhtin's Conception of Carnival

정유정*

Yoo Jung Jung*

요약 본 연구에서는 존 버닝햄의 그림책 2권(『셜리야, 물가에 가지 마!』, 『셜리야, 목욕은 이제 그만!』)을 Bakhtin의 대화주의 이론 중 카니발의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존 버닝햄의 그림책에서는 주인공 ‘셜리’의 일탈에 대한 무의식적인 소망이 기상천외한 상상세계에서의 모험으로 전환되어 웃음이 곁들여진 축제와 같은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림책을 통해서 유아들은 현실에서 금지된 행동을 상상세계에서의 사건으로 전환 시켜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만족한다. 이러한 간접 경험은 유아가 현실에서의 불만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면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내적 발달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다양한 그림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또한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존 버닝햄, 그림책, 카니발, 상상력

Abstract In this study, John Burningham's picturebooks(『Come Away from The Water, Shirley』, 『Time to Get Out of The Bath, Shirley』) was analyzed using the concept of carnival among Bakhtin's conversationalism theory. In John Burningham's picturebooks, the unconscious desire for the deviation of the main character, Shirley, is transformed into an adventure in an extraordinary imaginary world, and is depicted as a festival with laughter. Through picturebooks, children are satisfied by indirectly experiencing the forbidden behavior in reality by converting it into an event in the imaginary world. This indirect experience is very important for children to naturally resolve their dissatisfaction in reality and to develop their own original inner development.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providing an environment where children can easily access various picturebooks at home or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their growth.

Key words : John Burningham, Picturebook, Carnival, Imagination

*정희원, 세한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3년 9월 1일, 수정완료일: 2023년 9월 17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3일

Received: September 1, 2023 / Revised: September 17, 2023
Accepted: November 3, 2023

*Corresponding Author: yooj73@naver.com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ehan University,
Korea

I. 서론

인간의 일생 중 유아기는 끊임없이 상상을 즐기는 시기이다[1]. 유아기의 상상은 현실에서 자신에게 제약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상적인 규칙과 질서를 넘어서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한다. 유아들은 다양한 역할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사회적 경계를 넘어서는데, 예를 들어 왕, 여왕, 용사, 마법사 등으로 변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이러한 유아의 상상은 유아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감정을 탐색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2].

유아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은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다. 그곳에는 그들이 놀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있다. 예를 들어 유아교육기관의 교실이나 야외 놀이터, 가정에서의 개인만의 공간인 방과 가족이 모두 함께 이용하는 거실이나 욕실 등이 바로 그런 장소들이다. 유아들은 이러한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다양한 놀이를 즐기면서 많은 상상을 한다. 그들이 즐기는 상상 중에는 역할이 뒤바뀌어 아빠, 엄마가 되기도 하고 또는 계급의 전도로 왕자, 공주가 되어 멋진 왕국을 건설하기도 한다. 또한 유아들은 어른들의 걱정 어린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탈을 꿈꾸며 그들 자신만의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도 한다. 유아들이 상상하는 것들은 대부분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일들이다.

유아들은 이 시기에 꿈을 꾸면서도, 역할 놀이를 하면서도, 그리고 그림책을 읽으면서도 다양한 상상을 한다[3]. 유아들이 현실을 벗어나 미래의 상상세계를 꿈꾸는 내용을 구체화해서 시각화한 것이 바로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들은 이러한 그림책을 보면서 왕과 여왕이 되기도 하고 강아지와 사자와 같은 동물로 변신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기쁨을 만끽하는 축제의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이처럼 유아들은 그림책을 통하여 현실에서 벗어난 일탈과 전복을 간접적으로 체험한다.

존 버닝햄의 그림책 『셜리야, 물가에 가지 마!』 [4]와 『셜리야, 목욕은 이제 그만!』 [5] 도 예외는 아니다. 그의 그림책 중 ‘셜리 시리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주인공 셜리의 ‘상상’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재미로 가득 찬 모험세계로 전환시켜서 그의 일상생활은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축제의 장으로 변한다.

『셜리야, 물가에 가지 마!』의 주인공인 셜리는 부모님과 해변가로 떠난다. 그곳에서 그는 부모님이 금기시하는 놀이를 즐기면서 일탈적인 행동을 즐기고 있다. 『셜리야, 목욕은 이제 그만!』에서도 셜리가 욕실에서 엄마의 잔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리배를 타고 자신만의 상상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장면 등이 그려져 있다.

Bakhtin은 인간의 대화를 외적 대화와 내적 대화로 구분한다. 외적 대화는 서로 다른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적 대화는 동일한 사람의 내면에서 생기는 대화를 의미한다. 그는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넓은 의미의 큰 대화와 소설 등 문학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작은 대화를 구분하였다[6]. Bakhtin은 자신의 ‘대화’를 몇 가지 개념을 동원하여 설명한다. 사회적 존재인 한 인간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타인을 설명하기 위한 타자성(otherness), 시간과 공간의 연관성을 언어의 본질적 의미로 설명하는 크로노토프(chronotope), 자기만의 고유한 세계를 지닌 목소리들의 동등한 권리와 이들의 조화를 의미하는 다성성(polyphony), 발화된 언어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이어성(heteroglossia), 대화에서의 일탈과 전복, 웃음을 통해 비종결적인 확장된 미래로 이어지는 뜻으로 해석되는 카니발(carnival) 등이 바로 이런 개념들이다.

카니발(carnival)은 우리말로 ‘사육제’로 번역되는데, 이날은 기독교 문화권의 대표적인 축제이다. 이 축제 기간에는 평소 금기시되던 것들이 허용되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인 평민들도 사회적 강자들과 똑같이 축제에 참여해서 어울리고 즐기는 것이 허락되는 민중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바로 카니발 축제이다[7]. 즉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여 즐기는 ‘카니발’은 모든 위계질서와 서열 등으로부터 해방되는 기간이다[8].

본 연구는 Bakhtin의 대화주의의 이론 중 카니발의 개념을 이용해서 존 버닝햄의 그림책 2권(『셜리야, 물가에 가지 마!』, 『셜리야, 목욕은 이제 그만!』)에 표현된 상상세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존 버닝햄의 작품이 지닌 유아교육적 의의와 가치가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Bakhtin의 카니발

카니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행을 기리면서 금욕성

활을 하는 시기인 사순절을 맞이하기 직전에 벌어지는 축제이다. 이 축제 기간에는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등 평소에 금기하였던 것들이 허용되었으며, 민중들이 다 함께 어울리는 보편적인 민중문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7]. 이 기간만큼은 권위와 형식에서 벗어나 계급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어우러져 즐기는 것이 허용된다. 즉 ‘카니발’은 서열이나 규범과 모든 위계질서 등으로부터 해방되는 기간이며, 누구나 진정으로 즐겁게 참여하여 즐기는 축제라고 할 수 있다[8]. 즉 카니발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늘 숨기거나 억압받았던 욕망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유예되고 한정된 기간에만 허용되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기간에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자신의 욕망을 발산하며 즐긴다.

Bakhtin은 다성적 문학의 기초는 카니발적 성격에 있다고 보았다[9]. 카니발은 기존의 가치체계와 위계질서에 저항하며, 민중적이고 집단적이며, 다양성과 변화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미래 세계를 지향하는 자유로운 특성의 토대가 된다고 하였다. Bakhtin은 카니발에서 ‘서로 뒤바뀌고 전도된 삶’을 ‘유쾌한 상대성’이라고 표현했다[8]. 예를 들어 하인이 귀족이 되고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뒤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 유쾌한 상대성의 원천은 바로 금기시되던 것의 해방이다.

III . 존버닝햄 그림책에 나타난 카니발적인 요소

1. 셸리아, 물가에 가지 마!

셸리아는 부모님과 함께 휴가를 떠난다. 지금 셸리아의 가족이 휴가를 보내는 곳은 한적한 어느 해변가이다. 셸리아의 가족이 휴가로 선택한 해변의 모습은 길 잃은 강아지, 낡은 돛단배 한 척, 나무방과제 위의 갈매기 한 마리, 모래사장의 모습이 그려진 지극히 평범한 바닷가의 모습이다. 셸리아의 부모님은 해변의 모래사장 위에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있다. 엄마는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실 준비를 하고 아빠는 곧 담배를 피울 모양이다. 이런 장면은 일반적인 어른들이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다. 하지만 셸리아에게 있어 해변은 단지 평범한 쉬는 곳이 아니라, 그녀만의 독특한 상상의 나라로 가는 통로이다.

존 버닝햄의 셸리아시리즈의 그림책은 첫 장면부터 어른들의 현실세계와 유아의 상상세계가 자연스럽게 이

분법으로 나누어져 묘사된다[11]. 그림책의 왼쪽 장면이 부모님의 현실 속에서의 시공간을 묘사하고 있다면, 오른쪽에 펼쳐지는 장면은 셸리아만의 독특한 시공간, 즉 셸리아의 상상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셸리아의 이러한 상상세계 속에는 그녀가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 즉 그녀의 무의식적인 욕망이 잘 드러나고 있다.

첫 번째 장면은 셸리아의 부모님이 해변에 편안한 의자를 가져와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다. 휴가를 즐기면서 여유로운 듯 보이지만 그들의 시선은 온전히 셸리아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다. 그림책의 첫 장면부터 셸리아의 노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섞인 말투로 이야기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그려진다. “셸리아, 해엄치기엔 너무 쌀쌀한 날이구나.”라는 엄마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해변가를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는 셸리아의 뒷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쓸쓸한 바닷가에 서 있는 셸리아의 뒷모습은 유아들로 하여금 무한한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셸리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그림책을 읽는 유아들은 궁금해진다. 일반적인 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등 다양한 걱정스러운 대화가 이 그림책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그림책의 오른쪽 장면은 부모님의 이런 현실적인 걱정에도 불구하고 셸리아의 모험세계에 대한 상상이 자유롭게 펼쳐진다. 셸리아의 일탈이 시작된 것이다.

두 번째 장면부터는 셸리아의 모험적 상상세계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셸리아가 돛단배를 타고 만난 사람들은 어느 해적선의 선장과 선원들이다. 그림책의 선장과 선원들의 모습에서 시간상으로는 아주 먼 옛날의 어느 시대로 보인다. 부모님은 여전히 해변에서 우연히 만난 강아지는 위험하니 경계하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셸리아의 상상 속에서의 모험은 계속된다. 해적선의 선장은 셸리아를 반기기보다는 칼로 위협하고 경계한다. 셸리아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장과 한 판 승부를 겨룬다. 그리고 그 배에서 강아지와 함께 보물지도를 가지고 탈출한다. 보물섬에 도착하여 왕관, 목걸이 등 다양한 보물을 발견한 그림 속의 셸리아의 모습은 행복 그 자체다. 어느 덧 밤은 깊어 가고 셸리아는 해적을 상징하는 깃발을 달고 왕관과 긴 칼을 차고 웃음을 머금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셸리아의 행복했던 일탈은 이제 마무리되고 현실로 돌아와 엄마, 아빠와 즐겁게 보냈던 해변의 추억을 뒤로한 채 현실로 돌아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셸리아, 물가에 가지 마!』 속에는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부모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 있다. 이 그림책에서도 어른들이 휴가 시 즐기는 일상적인 편안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으며, 또한 아이들의 놀이를 보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걱정 어린 어른들의 시선이 잘 표현되고 있다. 전형적인 현실의 세계, 즉 셜리가 꿈꾸는 자유와 일탈의 세계와는 대비되는 현실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셜리가 바다풀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고 ‘지저분한 흙덩이’, ‘낮선 개’, ‘고약한 바다풀’ 등의 표현과 ‘집에 안 가져갈 거야. 그렇지?’라고 되묻는 부정적인 의문문은 셜리에게 있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부모님의 걱정 어린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셜리만의 즐거움이자 축제의 장인 보물섬에 도착한다. 셜리가 왕관, 목걸이 등 멋진 보물을 배에 가득 싣고 보물섬을 떠나는 모습은 그녀의 행복 그 자체이자 즐거움인 것이다.

셜리가 바닷가에서 놀이할 때 활용하는 자연물, 즉 냄새나는 고약한 풀이나 흙덩이 등은 부모님이 금기시하는 놀잇감이지만 셜리한테는 자유로운 모험세계로 이끄는 연결고리가 된다. 셜리의 상상 속에서의 일탈은 그녀를 웃음 짓게 만들고, 이 웃음은 그녀가 현실 속으로 돌아가서 한동안은 잘 지낼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셜리의 자유로운 일탈은 한시적인 것이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셜리의 뒷모습에서 ‘한시성’이라는 Bakhtin의 ‘카니발’적 요소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림 1. 셜리아, 물가에 가지 마!
Figure 1. Come away from the water, Shirley

2. 셜리아, 목욕은 이제 그만!

『셜리아, 목욕은 이제 그만!』의 첫 장면은 셜리집의 욕실이다. 이 그림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셜리아, 너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거니?”와 같은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엄마의 대사가 마지막 장면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엄마의 걱정과 염려의 말은 셜리에게 억압으로 느껴진다. 그녀는 엄마의 끊임없는 잔소리를 피해서 자신만의 상상의 세계로 도피한다. 『셜리아, 물가에 가지 마!』에서와 마찬가지로 왼쪽 그림에서는 엄마의 현실세계가 펼쳐지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셜리의 현실을 벗어난 자유로운 상상세계가 펼쳐진다.

셜리가 지금 목욕을 하고 있는 곳은 욕실이다. 셜리에게 욕실은 몸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녀만의 엉뚱한 상상이 펼쳐지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는 셜리만의 독특한 상상세계가 펼쳐지는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장면에서 엄마와 셜리가 목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두 번째 왼쪽 장면에는 “다시는 욕조 안에 비누를 넣어 두지 마, 알겠니?”라는 엄마의 잔소리가 이어지고 오른쪽 장면에서는 셜리가 장난감 오리배를 타고 욕조의 연결관을 통과하고 있다. 드디어 셜리의 상상 속에서의 모험이 시작된 것이다. 오리배는 셜리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다. 이 단순한 장난감은 셜리를 상상의 세계 속으로 인도하는 실제의 배로 변한다. 즉 현실과 상상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셜리의 무궁무진한 상상은 그녀를 여러 다른 세계로 인도한다. 셜리는 드디어 어느 나라의 말을 탄 기사를 만나게 된다. 현실에서 엄마의 잔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셜리의 상상세계에서의 모험은 멈추지 않는다. 기사를 말을 타고 간 셜리는 어느 왕국의 왕을 만나게 되고, 장난감 오리배가 악기가 되어 악기놀이를 하기도 하고 오리배를 타고 물 위에서 권투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이와 같은 오리배의 다양한 모습으로의 변신은 유아만의 독특한 상상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생명이 없는 장난감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피아제가 말하는 물활론적 사고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12].

일반적인 욕실에는 욕조와 물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욕실은 간단히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셜리에게 있어 커다란 욕조 속의 물은 단순히 깨끗이 몸을 씻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물은 상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자연스럽게 장난감 오리배는 그녀를 상상의 세계로 이끄는 실제의 배 역할을 하게 된다. 목욕탕은 특별한 놀이공간이 된다. 즉 현실을 도피해서 자유롭고 행복한 공간으로 탈출하는 장소가 된다.

유아들의 상상놀이는 그들만의 단순한 상상을 넘어 그 이상을 추구하는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동기가 된다[13]. 더 나아가 유아들의 창의성 발달과 연결되어 미래에서 추구하는 창의적 인간상을 구축하는데 발돋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11]. 존 버닝햄의 그림책도 유아의 단순한 일탈에 대한 욕망이 그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자극해서 다양하고 자유분방한 세계를 경험하면서 일시적으로나마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셸리아, 목욕은 이제 그만
Figure 2. Time to get out of the bath, Shirley

IV. 결론

본 연구는 존 버닝햄의 그림책 속에 묘사되는 상상 세계를 Bakhtin의 대화주의 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존 버닝햄의 그림책에 묘사되는 셸리아의 상상은 Bakhtin의 대화주의 이론 중에서 특히 카니발 개념을 통해서 잘 설명이 되고 있다. 셸리아의 상상에는 그녀가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탈적/상상적 상황에 대한 바람이 잘 나타나고 있다. 현실에서의 질서와 가치체계, 혹은 위계적 질서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면서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를 꿈꾸는 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카니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Bakhtin은 다성적 문학의 근간은 카니발적 성격에 있다고 하였다[9]. 예를 들어 셸리아는 부모님의 걱정 어린 잔소리에서 벗어나고자 자유로운 세계를 상상한다. 셸리아는 보물섬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고 신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상황들을 연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그녀의 웃음이 곁들여지는 즐거움으로 이어지고, 이런 상황은 그녀만의 축제의 시간이 된다.

본 연구는 유아들의 그림책에 나타나는 상상의 세계를 Bakhtin의 대화주의 이론 중 카니발 개념을 가지고 분석해서, 그 상상의 내용이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단순한 상상이나 꿈과 연결되지만, 조금 더 확대해석하면 현실로부터의 탈출, 혹은 현실에서의 제약을 벗어나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망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유아들이 겪는 것은 그들의 발달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그들의 내적인 욕망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들은 그림책과 대화하면서 기상천외하고 허무맹랑한 세계를 상상한다. 이러한 상상은 유아들의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 설사 유아들의 이런 상상이 도를 지나쳐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유아들의 기발하고 독특한 상상력의 발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2]. 가정과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들이 다양한 그림책을 보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또한 본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로는 첫째, 본 연구는 존 버닝햄 그림책 중 '셸리시리즈'만을 국한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다양한 그림책 군의 카니발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존 버닝햄 그림책 '셸리시리즈'를 분석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금기시된 일탈은 주인공의 해방된 즐거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심도 있는 그림책 내용분석을 통해 유아의 무한한 상상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 구체적 관련성이 무엇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J. W. Yang, J. K. Kim and H. Y. Kim, "Implications for Bachelard's Imagination and Image on Child Imagination Education," *Teacher Education Research (TER)*, Vol. 57, No. 1, pp. 64-78, 2018. DOI: 10.15812/ter.57.1.201803.64
- [2] Jung, Y. J., *An Analysis of Five-Year-Old Children's Dialogues in Cooperative Art Play: From the Perspective of Bakhtin's Dialogism*, Incheon University, Incheon, South Korea, 2023.
- [3] Park, K. S., *An Analysis of Five-Year-Old Children's Dialogues in Picture Book Reading*

- Activ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Bakhtin's Dialogism, Incheon University, Incheon , South Korea, 2020.
- [4] J. Burningham, "Come Away from The Water, Shirley," Seoul: BIR., South Korea, 2003.
- [5] J. Burningham, "Time to Get Out of The Bath, Shirley," Seoul: BIR., South Korea, 2004.
- [6] W. D. Kim, "Bakhtin and Dialogism," Seoul: Na Nam, South Korea, 1990.
- [7] K. E. Lee, "Mikhail Bakhtin and Polyphony," Seoul: Youk Rack, South Korea, 2011.
- [8] J. S. Kang, "Reading Toni Morrison's Beloved with Carnivalism,"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SELL)*, Vol. 41, No. 3, pp. 1-22, 2015. DOI : 10.21559/aellk.2015.41.3.001
- [9] M. Bakhtin,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4.
- [10] W. D. Kim, "Dialogical Imagination: Bakhtin's Theory of Culture," Seoul: Moonjl, South Korea, 1999.
- [11] Y. J. Jung, "Educational Implications of John Burningham Picture Books: A Study on the Imaginative Form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HSS21)*, Vol. 31, No. 2, pp. 1489-1500, 2022. DOI: 10.22143/HSS21.13.2.105
- [12] K. Y. Song etc,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Cengage Learning, South Korea, 2012.
- [13] H. H. Chon, "A Case Study on Young Children's Imaginative Play in Art Activities,"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KSECEC)*, Vol. 13, No. 1, pp. 5-33, 2018. DOI: 10.16978/ecec.2018.13.1.001